

# 광주 車 번호판 영치율 10% 미만 ‘유명무실’

과태료 누적·자동차세 2회 미납등 대상  
자치구별 집행률 차이...광산구 1%대  
올해 3월 기준 체납 금액 180억 훌쩍  
“인력 부족” 토로...‘체납관리단’ 주목

광주 5개 자치구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나 세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률은 10% 수준으로 드러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해 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오고 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누적된 지 60일이 지나거나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특히 각 자치구에 등록되지 않은 관외 차량도 다른 지자체와 맺은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영치가 가능하다. 단 관외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체납이 3회 이상일 때만 해당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채로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지자체들은 체납 세금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영치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광주 5개 자치구의 번호판 영치 대상은 ▲동구 57대 ▲서구 5천4대 ▲남구 1천287대 ▲북구 1만166대 ▲광산구 5천752대 등 총 2만2천82

2대였다.

반면 실제 집행 현황은 ▲동구 212대 (36.74%) ▲서구 491대 (9.74%) ▲남구 372대 (28.9%) ▲북구 864대 (8.49%) ▲광산구 115대 (1.99%)로 차이가 컸는데, 전체로 환산하면 9%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전체 영치 대상 1만9천399대 중 1천610대에 대해서만 집행이 이뤄져 달성율은 82.9%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때문에 자치구별 누적된 체납 금액은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3월 기준 자치구별 자동차세 체납 금액은 ▲동구 약 7억2천만원 ▲서구 약 30억8천만원 ▲남구 약 7억6천만원 ▲북구 약 75억6천만원 ▲광산구 약 58억2천만원 등이다.

이 같은 상황의 원인으로 광주 5개 자치구는 모두 ‘현장 인력 부족’을 꼽았다.

집행은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인근을 돌아다니거나 번호 인식 기능이 탑재된 차량을 타고 순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사실상 발견돼야만 영치할 수 있는 구조다.

문제는 남구의 경우 지난 3월30일 기준 영치 대상이 1천31대에 달했으나, 집행 인력은 단 1명에 그쳤다. 집중 점검 시에는 다른 곳의 인력이 지원되지만, 이것만은 실효성 있는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남구와 비슷한 시점에 영치 대상이 7천381대인 북구는 담당 인원이 2명으로 상황이 더욱 열악했는데, 나머지 자치구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남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독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늘 인력난에 시달려 실적은 아쉬운 상황”이라며 “공공근로자를 모집해 전담 팀을 꾸리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구 관계자도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꾸려진다면 번호판 영치에도 동원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기간제 근로자 등을 활용해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를 독려하는 제도로,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4년간 기간제 근로자 총 2만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최근 동구 5명, 서구 11명, 남구 6명, 북구 14명, 광산구 14명 등 총 50명을 채용했고 8월3일-11월30일 현장에 투입할 방침이다. /서형우 기자

## ‘묻지마 살인’ 20대 살인예비 혐의 추가될까

스토킹 성범죄 피해자 상대...입증 관련  
내일부터 신상 공개...檢 송치도 예정

심야 시간대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동료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살인 예비 혐의가 추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인다.

12일 광주 공안경찰서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24)씨에 대한 구속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추가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A씨가 지난 5일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전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외국인 여성에게 스토킹 행위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건과 이번 사건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외국인 여성이 지난 3일 광주에서 피해를 입은 후 이시간 다른 지역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 사이 A씨가 집 근처를 또다시 찾자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사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정식 수사 의뢰 계획을 밝힘에 따라 현장에서 종결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살인 범행이 발생했고 스토킹 범죄 등을 인계받은 공안경찰서는 두 사건의 인과 관계를

살피고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스토킹 신고 이후 시간대에도 외국인 여성의 주거지 근처를徘徊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가 흉기를 소지했다면 피해 여성을 상대로 살인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할 경우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구속 만료일이면서 신상 공개 시 작 날짜이기도 한 14일 중 A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안재영 기자

## 광주경찰 “‘여고생 사망’ 2차 가해 엄정 대응”

내달 3일까지 특별치안활동 전개도  
광산구, 부상 남고생 ‘의사상자’ 지원

광주경찰청은 12일 “지난 5일 여고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일부 누리꾼들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댓글이나 인격모독 표현을 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광주경찰청은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사건의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광주경찰청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시민 불안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다중밀집지역과 범죄취약지를 중심으로 순찰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광주 광산구는 사망한 여고생을 도우려다 다친 A(17)군의 의사상자 지정을 지원하고 있다.

광산구는 A군의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수사 자료와 치료 관련 서류를 확보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재영 기자

## 유탄그룹 계열사 3곳 ‘희생 재도전’

한 차례 폐지 결정을 받은 유탄그룹 내 계열사 3곳이 다시 한 번 희생 절차를 밟는 중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탄건설과 유탄엔지니어링, 유탄디앤씨는 지난 8일 광주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20일 회생 폐지 결정을 내린 지 약 20일 만이다. 해당 사건들은 모두 제1-2파산부에 배당됐고, 재판부는 이날 법인 3곳에 대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 처분을 내렸다.

유탄건설과 유탄엔지니어링, 유탄디앤씨의 채무액은 각각 1조2천억원, 3천억원, 2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법인 3곳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열고 채무자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안재영 기자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전국적으로 민방위 훈련이 진행된 12일 오후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자 공무원들이 입을 가리고 신속하게 대피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 정성호, 구자현과 5·18묘지 참배...檢 지휘부 첫 방문

15일 대검 간부·일선 지검장 참석  
국가 권력 인권 침해 반성 메시지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고위 간부들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책임자와 5·18민주묘지를 찾은 건 처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오는 15일 구대행, 광주 지·고검장, 법무부 검찰 실·국장들과 광주 북구 소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이다.

참배에는 구 대행을 비롯해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최지석 공공수사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현 남부지검장 등 전국 일선 검찰청 책임자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참배는 검찰을 비롯한 국가 권력의 인권 침해 행태를 반성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은 글에서도 “국민은 검찰이 국민에게 가한 아픔과 고통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며 자성을 촉구한 바 있다. /안재영 기자

###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